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는 89.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11.3% 감소, 경공업 부문 3.5% 증가
 - 서울의 8월 제조업부문 재고 증가, 출하 감소한 재고누중 단계임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6,29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여름 휴가 및 계절 특수로 가전제품 판매 증가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2005=100)로 전월대비 0.3%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7%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5%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7%p 증가한 61.8%로 나타남
- 서울의 8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4천명(3.6%) 증가한 4,962천명임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81천명(3.0%), 여자는 92천명(4.5%)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1.4%) 0.8%p 차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실업률은 4.3%로 남자는 4.9% 하락, 여자는 3.4%로 보합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59.1%로 남자는 1.6% 하락, 여자는 1.7%로 보합
 - 서울의 실업률(4.3%)은 전국 실업률(3.3%)과 1.0%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1%)과 전국(59.1%)이 보합인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 8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2,85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8%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신규주택, 기계설치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동월대비 30.4% 감소
 -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주택 및 상하수도, 통신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9.4% 증가
- 8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4%)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와 보금자리주택, 장기 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강북지역(-0.4%)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도봉구, 용산구, 노원구, 강북구가 하락을 주도함
 - 강남지역(-0.4%)도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8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북강남지역 모두 상승폭 확대
 - 지난달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0.3%)은 강북지역(0.2%)이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강남지역(0.4%)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 강북지역(0.2%)에서는 광진구, 마포구 등에서 상승하였고, 성북구, 도봉구 등에서 하락
 - 강남지역(0.4%)에서는 영등포구, 구로구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동작구는 전월대비 하락

금융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7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7조 2,82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7,114억원(0.53%) 증가
- 7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7월 신설법인수는 1,850개로 전년동월대비 6.3%(124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1%(21개) 감소하였음
- 7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 7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33.3%(14개) 증가
- 8월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수출은 37.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6.4%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등의 순
 - 8월 서울의 수입은 86.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3.4%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의 순

| 생 · 산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는 89.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49.0%), 의복 및 모피(3.4%) 등은 증가하였으나 금속탱크 및 용기와 같은 금속가공(-76.4%) 등에서는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부문 감소, 경공업 부문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3% 큰 폭으로 감소하며 3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여 6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 전월대비로는 1.0% 감소
- 부문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8.4%)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6.0%), 기계장비(62.6%) 등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4.2%), 교육(-3.4%)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교육(11.5%), 운수(10.0%), 보건사회복지(9.3%), 도매소매(9.3%) 등의 호조로 4.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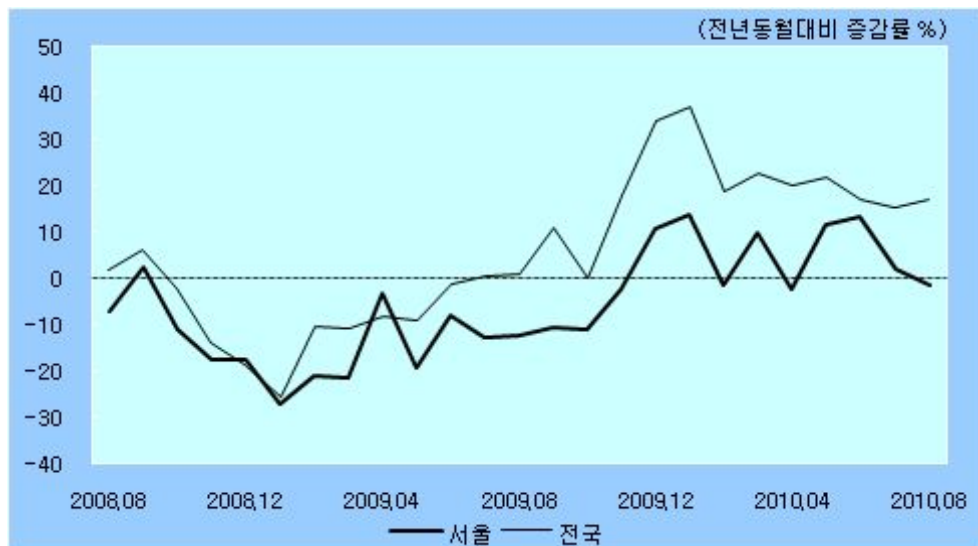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2.2	-2.5	11.6	13.5	2.2	-1.6
	중공업	-13.4	-21.6	0.5	-3.7	-4.4	-11.3
	경공업	-11.5	9.5	17.8	24.4	5.5	3.5
	전국	1.0	20.1	21.7	17.2	15.5	17.1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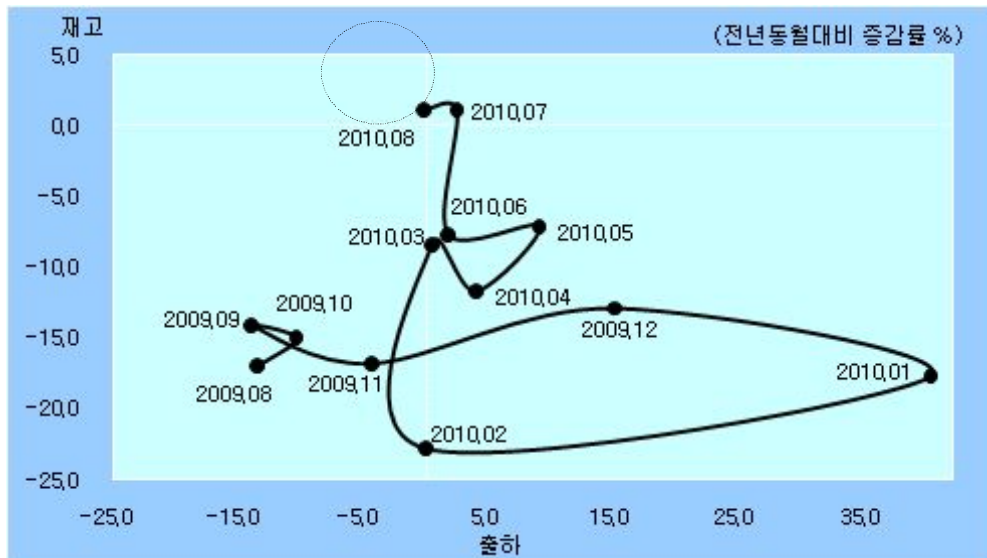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8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8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증가, 출하 감소

- 서울의 8월 재고지수는 153.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업종별로는 섬유 제품 등은 감소하고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
- 재고 증가, 출하 감소하여 재고주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감소, 경공업 증가

- 서울의 8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64.3%로 전월대비 3.8%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98.0%로 전월대비 2.8%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1.7%p 감소한 145.1%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6.9%p 증가한 168.0%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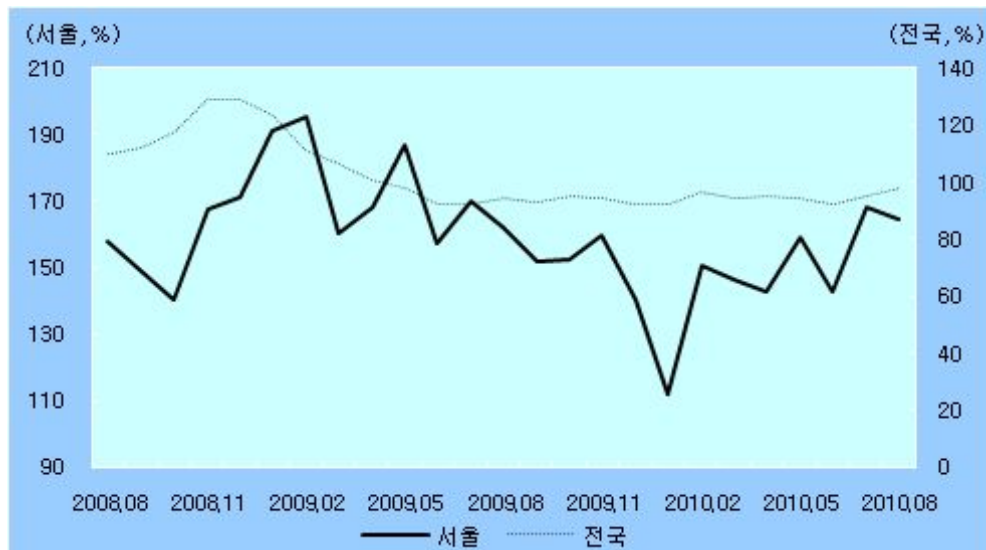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재고율	서울	162.2	142.8	159.2	142.8	168.0	164.3	-3.8
	중공업	121.6	171.1	174.0	136.2	166.8	145.1	-21.7
	경공업	176.9	128.8	150.7	144.9	161.1	168.0	6.9
	전국	94.5	94.9	94.1	92.3	95.2	98.0	2.8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6,29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3.3% 증가, 대형마트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여름 휴가 및 계절 특수로 가전제품 판매 증가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4,106억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대형마트는 1.6% 감소함
- 유형별로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25.8%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5.3%,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3.1%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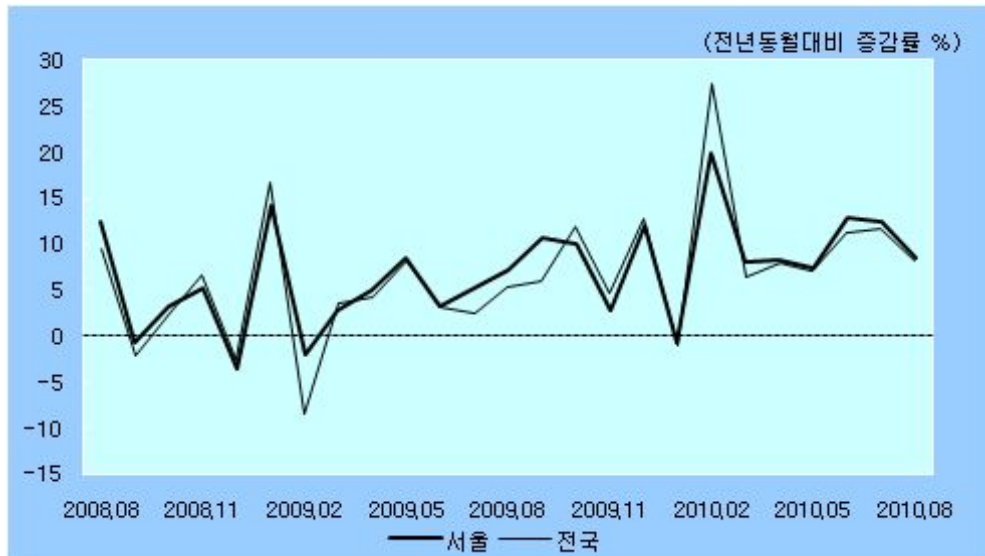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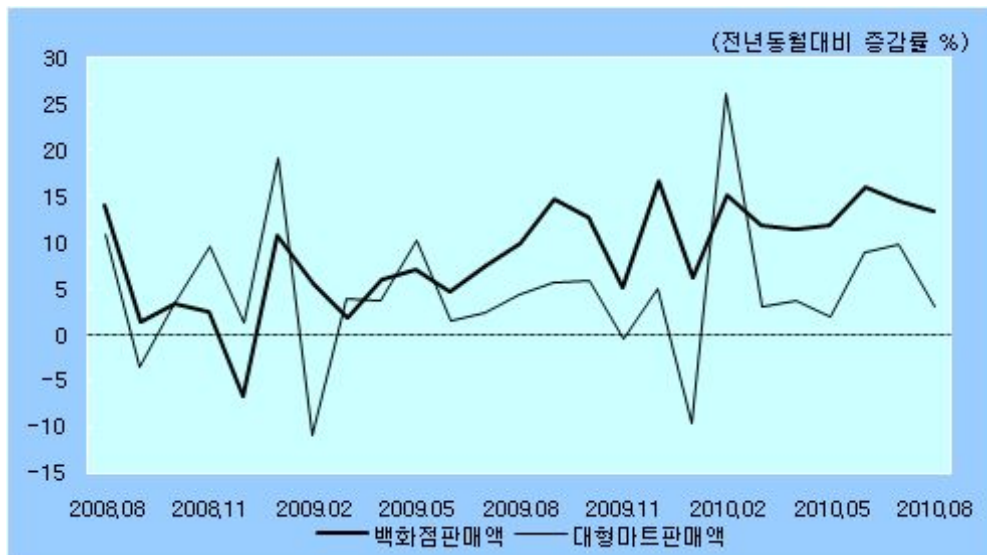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판매액	서울	1468.7 (7.2)	1978.3 (8.2)	2053.7 (7.5)	1852.4 (12.9)	1725.7 (12.4)	1629.9 (8.5)
	백화점	703.0 (9.9)	936.6 (11.4)	956.6 (11.8)	887.9 (16.0)	839.0 (14.5)	796.4 (13.3)
	대형마트 (할인점)	618.7 (4.3)	607.4 (3.6)	672.6 (1.9)	647.3 (9.0)	669.9 (9.9)	638.0 (3.1)
	전국	4075.8 (5.3)	4501.4 (7.9)	4882.9 (7.0)	4529.9 (11.2)	4624.3 (11.6)	4410.6 (8.2)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전도사:115.9, 2005년=100)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9% 각각 상승

■ 서울의 8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5%, 전년동월대비 16.6% 각각 상승

■ 전국 8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하여 1개월 만에 다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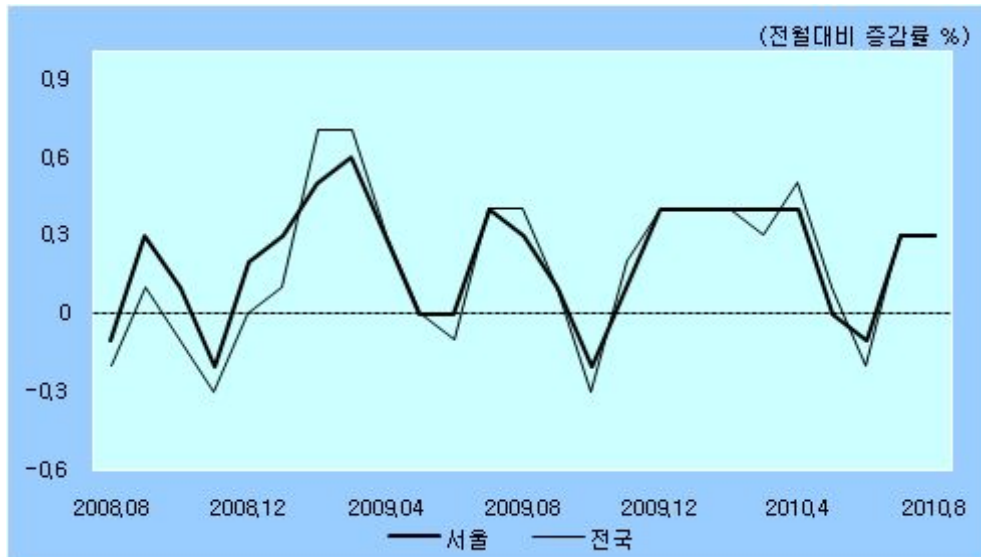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2005년=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함으로써 전월의 0.3% 하락이후 2개월째 상승세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6%, 전년동기대비 3.0%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모두 0.2~0.6%씩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서울		0.3 (2.6)	0.4 (2.3)	0.4 (2.5)	0.0 (2.5)	-0.1 (2.4)	0.3 (2.4)
	상품 성질별	상품	0.4 (3.2)	0.6 (2.8)	0.9 (3.2)	-0.3 (3.1)	-0.3 (3.2)	0.6 (3.2)
		서비스	0.2 (2.3)	0.3 (2.1)	0.2 (2.1)	0.2 (2.2)	0.0 (2.1)	0.3 (2.0)
	생활물가		0.3 (2.0)	0.5 (2.9)	0.5 (2.7)	-0.3 (2.6)	-0.4 (2.5)	0.3 (2.4)
	신선식품		1.7 (5.7)	5.0 (7.8)	6.2 (10.5)	-4.2 (7.9)	-7.3 (9.3)	4.7 (12.5)
	전국		0.4 (2.2)	0.3 (2.3)	0.5 (2.6)	0.1 (2.7)	-0.2 (2.6)	0.3 (2.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9월 신선식품 중 배추, 무, 마늘 등의 채소류 가격 큰 폭 상승

- 소비자들의 52개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22.6%으로 큰 폭으로 상승, 나머지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1.4% 상승
- 청과류 중 배추는 전월대비 32.2%, 파는 51.4%, 무는 11.3%, 양파는 7.2% 그리고 마늘은 5.8%로 채소류는 모든 품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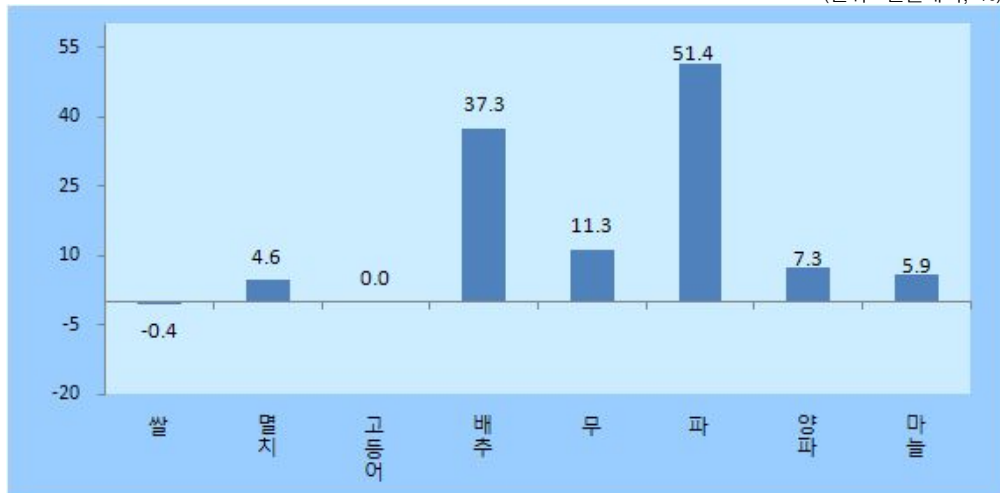
〈표〉 9월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율
양곡	쌀	42,206	41,831	41,901	42,143	41,968	-0.4
수산	멸치	2,410	2,415	2,574	2,463	2,582	4.61
	고등어	3,000	3,000	2,568	2,500	2,500	0.0
채소	배추	4,077	3,405	4,560	4,903	7,816	37.2
	무	2,027	1,872	2,231	2,646	2,983	11.3
	파	3,029	3,052	2,820	2,315	4,766	51.4
	양파	1,807	1,553	1,620	1,592	1,717	7.2
	마늘	6,794	6,982	9,787	10,713	11,383	5.8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고랭지(상품), 봄(상품)), 무(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간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15세이상 인구는 8,3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0.7%)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1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3천명(3.5%)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으며, 남자는 73.2% 여자는 51.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3.4%)이 감소

■ 전국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8월 15세이상인구는 40,6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3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8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1천명(1.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29천명으로 136천명(0.9%)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07천명으로 176천명(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과 보합인 것으로 나타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2.5 (-1.9)	0.8 (0.2)	2.0 (1.5)	2.3 (0.5)	1.7 (-0.1)	2.7 (0.7)	3.5 (-1.2)
	남자	-2.3 (-1.8)	0.6 (0.3)	1.4 (0.9)	0.4 (-0.3)	0.1 (0.2)	1.3 (0.8)	2.6 (-0.5)
	여자	-2.8 (-2.0)	1.2 (0.1)	2.8 (2.3)	5.0 (1.5)	3.8 (-0.5)	4.6 (0.6)	4.6 (-2.0)
	전국	0.6 (-0.9)	1.3 (1.4)	1.6 (2.0)	1.8 (1.0)	0.9 (0.2)	1.9 (0.3)	1.3 (-1.6)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0.1	61.1	62.0	62.2	62.1	62.5	61.8
	남자	71.8	72.6	73.2	73	73.1	73.6	73.2
	여자	49.1	50.2	51.3	52.1	51.8	52.0	51.0
	전국	61.1	60.3	61.4	61.9	62	62.1	61.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 서울의 8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자는 8월 4,9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4천명(3.6%)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6천명, 여자는 2,1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81천명(3.0%), 여자는 92천명(4.5%)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62천명(18.0%), 제조업 44천명(9.0%),농림어업 1천명(9.0%), 전가운수·통신·금융업 37천명(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1천명(2.2%)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11천명(-0.8%)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1.4%) 0.8%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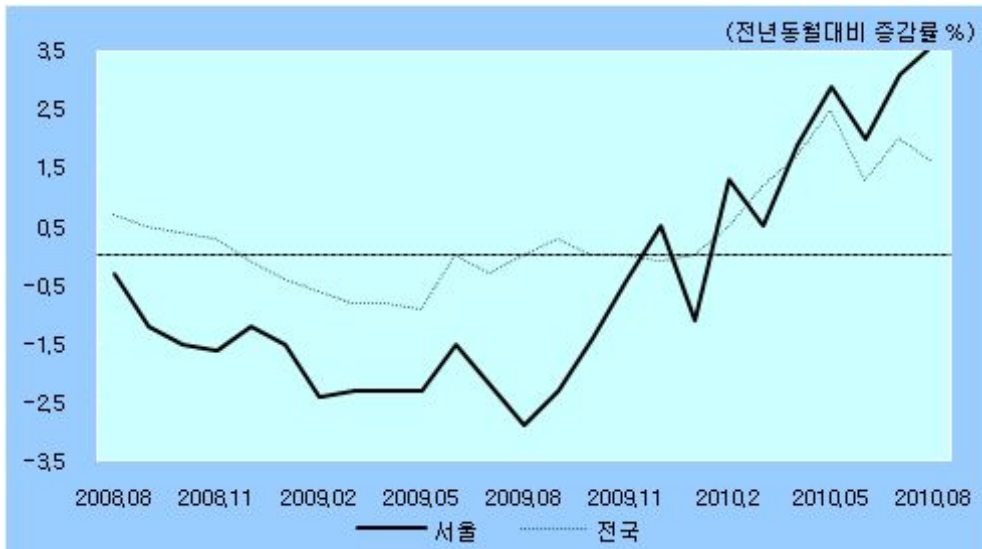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취업자는 24,0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6천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8천명(1.6%)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00천명으로 167천명(1.7%)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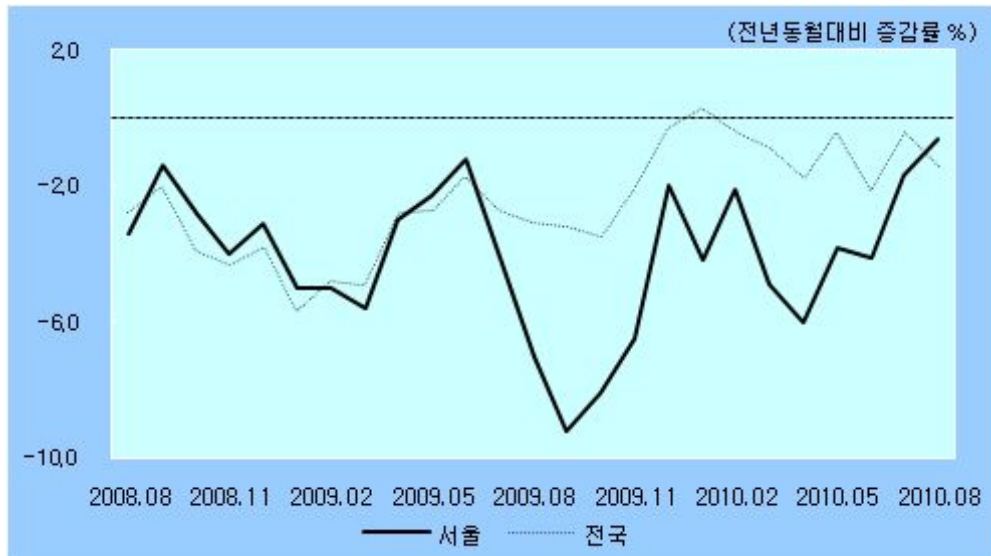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서울	-2.9 (-1.5)	0.5 (0.9)	1.9 (1.6)	2.9 (1.4)	2.0 (-0.1)	3.1 (0.5)	3.6 (-1.0)	
	남자	-3.2 (-1.4)	0.9 (1.1)	1.0 (0.6)	0.6 (0.9)	0.5 (0.3)	2.0 (0.7)	3.0 (-0.4)	
	여자	-2.4 (-1.7)	0.1 (0.6)	3.1 (3.1)	6.0 (2.1)	4.1 (-0.6)	4.6 (0.2)	4.5 (-1.8)	
	전국	0.0 (-0.9)	1.2 (2.2)	1.7 (2.3)	2.5 (1.6)	1.3 (-0.1)	2.0 (0.1)	1.6 (-1.2)	
청년층 취업자	서울	-7.0 (-4.0)	-4.9 (-3.0)	-6.0 (2.6)	-3.8 (4.4)	-4.1 (-1.2)	-1.7 (1.8)	-0.6 (-2.9)	
	전국	-3.1 (-3.1)	-0.9 (-1.8)	-1.8 (2.0)	-0.4 (3.1)	-2.1 (-1.9)	-0.4 (3.1)	-1.4 (-4.0)	
고령층 취업자	서울	3.7 (-0.7)	9.4 (8.1)	13.6 (4.5)	16.2 (2.9)	7.8 (-0.4)	10.6 (0.8)	8.9 (-2.3)	
	전국	4.7 (0.0)	0.5 (12.7)	4.0 (9.4)	5.8 (4.8)	2.4 (0.9)	3.4 (-1.1)	1.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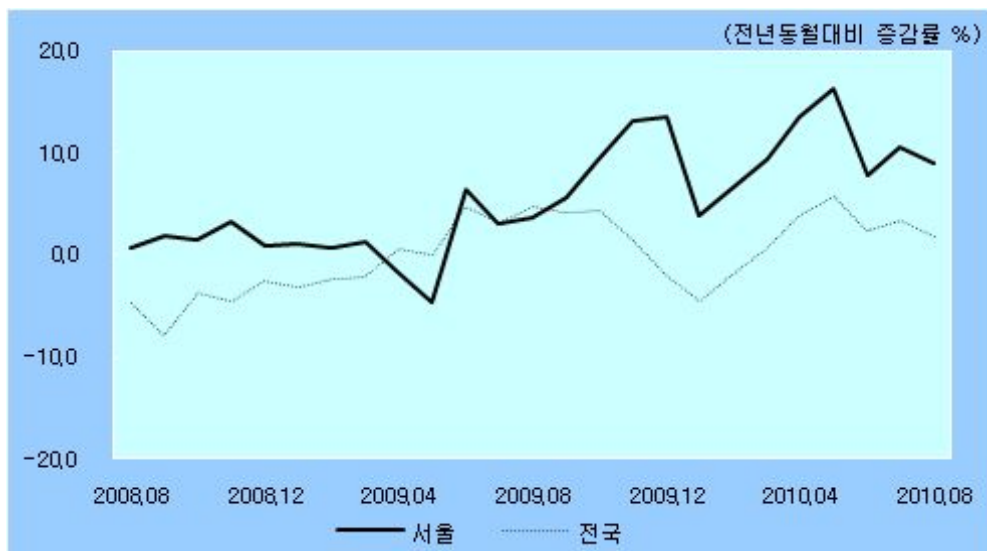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56.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88천명(15.1%), 사무종사자 30천명(3.5%)이 각각 증가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3천명(-2.3%), 서비스·판매종사자 15천명(-1.2%)이 각각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75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5천명(-2.1%)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99천명(5.5%)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천명(-3.5%)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2천명(7.2%)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5천명(4.2%), 임시근로자는 120천명(10.6%)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7천명(-1.5%)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일시휴직자도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6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6%)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1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4천명(5.2%)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천명(10.6%)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28천명(-6.1%)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5천명(5.8%)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도 49천명(3.8%)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1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16.2%)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별	제조업	-14.3 (-3.6)	-7.2 (3.2)	5.1 (3.1)	0.5 (-0.1)	5.1 (-0.4)	5.6 (-0.8)	9.0 (-0.6)
	SOC 및 기타서비스업	-1.4 (-1.3)	1.6 (0.6)	1.5 (1.5)	3.2 (1.6)	1.7 (-0.1)	2.8 (0.6)	3.0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9 (-1.8)	1.9 (1.4)	2.8 (3.5)	4.5 (2.0)	2.0 (0.5)	3.3 (0.9)	2.2 (-2.8)
	도소매·음식숙박	-4.3 (0.0)	1.0 (-1.8)	-0.4 (-1.0)	2.8 (2.4)	-2.5 (-4.2)	-0.7 (1.9)	-0.8 (-0.1)
	전기·운수·통신·금융	-1.2 (-1.6)	6.7 (-0.8)	4.0 (0.7)	3.3 (0.0)	6.5 (2.8)	3.1 (-3.9)	5.0 (0.2)
	건설업	-18.9 (-2.3)	-7.5 (9.0)	-3.6 (2.4)	-2.2 (0.2)	5.2 (6.1)	13.1 (4.1)	18.0 (2.0)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3 (-1.0)	0.6 (-0.3)	0.2 (2.0)	1.2 (0.0)	0.3 (1.1)	-0.2 (0.1)	-2.3 (-3.0)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11.5 (-2.3)	2.9 (5.9)	10.6 (4.0)	10.4 (2.5)	10.0 (-0.2)	13.7 (1.2)	15.1 (-1.1)
	서비스·판매종사자	-4.9 (-1.7)	-1.5 (-1.8)	-2.4 (-1.1)	-0.9 (1.5)	-4.7 (-3.0)	-3.4 (0.9)	-1.2 (0.5)
	사무종사자	6.3 (-1.1)	-0.2 (-1.1)	-2.1 (1.3)	-0.3 (1.8)	2.7 (2.1)	2.1 (-0.7)	3.5 (0.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5 (-1.4)	-0.1 (1.0)	1.8 (2.0)	4.2 (2.3)	3.2 (0.1)	4.8 (0.8)	5.5 (-0.6)
	비임금근로자	-6.8 (-1.9)	2.6 (0.5)	2.3 (0.7)	-1.0 (-1.3)	-1.4 (-1.0)	-1.8 (-0.6)	-2.1 (-2.2)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8월 실업자는 2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3%)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3.0%)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76천명으로 4천명(5.6%)이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4%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음

■ 전국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실업자는 8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8.2%)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명(-13.7%) 감소하였고, 여자는 3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2.9%) 증가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고, 여자는 3.0%로 전년동월과 보합
-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전월대비 0.3%p 하락

■ 서울의 8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의 고용률과 보합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6%, 여자는 49.2%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6%p, 1.7%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1%)과 보합
- 전국의 8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자는 48.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60세미만 연령계층은 상승하였고, 60세이상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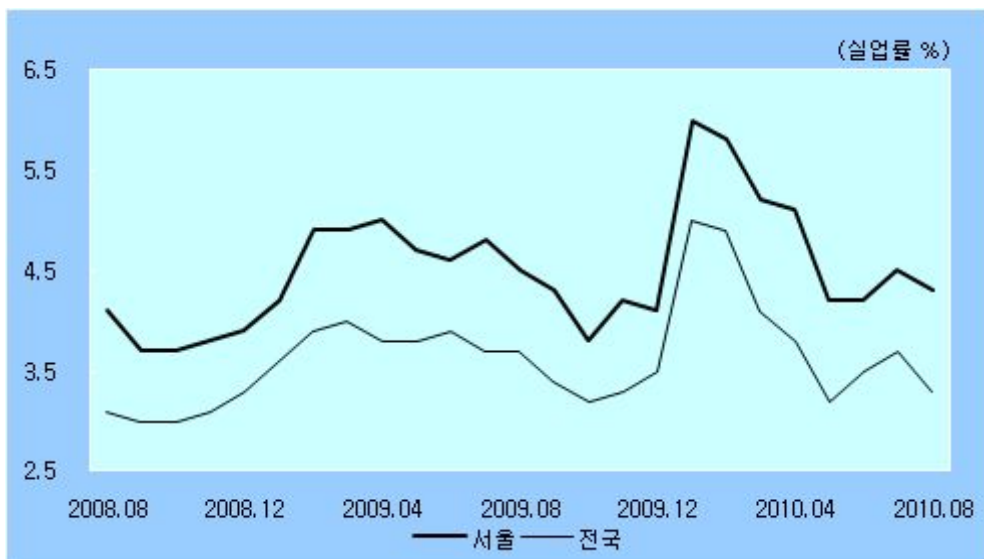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업률	서울	4.5	5.2	5.1	4.2	4.2	4.5	4.3
	남자	5.2	5.8	6.1	5.0	4.9	5.0	4.9
	여자	3.4	4.5	3.7	3.1	3.3	3.7	3.4
	전국	3.7	4.1	3.8	3.2	3.5	3.7	3.3

		2008년	2009년					2010년
		2/4	1/4	2/4	3/4	4/4	1/4	2/4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8.9	7.8	8.4	7.8	10.0	8.1
	전국	7.4	8.6	8.0	8.1	7.6	9.5	7.7
고령층 실업률	서울	2.2	2.0	3.2	2.0	1.7	7.2	4.3
	전국	1.2	1.6	1.9	1.6	1.5	5.8	2.1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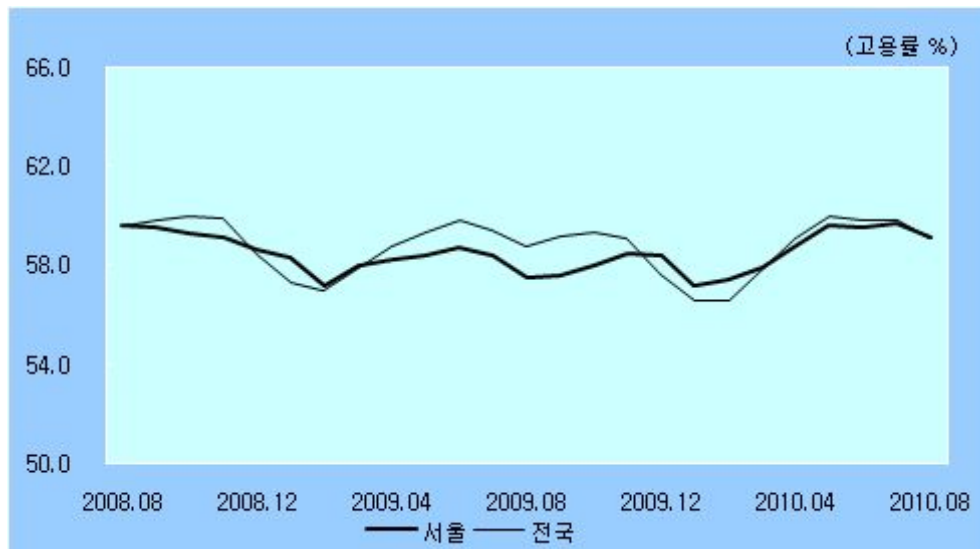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용률	서울	57.5	57.9	58.8	59.6	59.5	59.7	59.1
	남자	68.0	68.4	68.8	69.3	69.5	70.0	69.6
	여자	47.5	48.0	49.4	50.4	50.0	50.1	49.2
	전국	58.8	57.8	59.1	60.0	59.8	59.8	59.1

		2008년	2009년					2010년
		2/4	1/4	2/4	3/4	4/4	1/4	2/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6.4	43.9	45.6	43.8	42.8	42.8	44.1
	전국	41.9	39.9	41.1	40.7	40.1	40.1	40.8
고령층 고용률	서울	31.4	28.7	30.3	31.1	32.5	29.4	32.7
	전국	38.9	33.2	38.3	38.9	36.4	31.4	38.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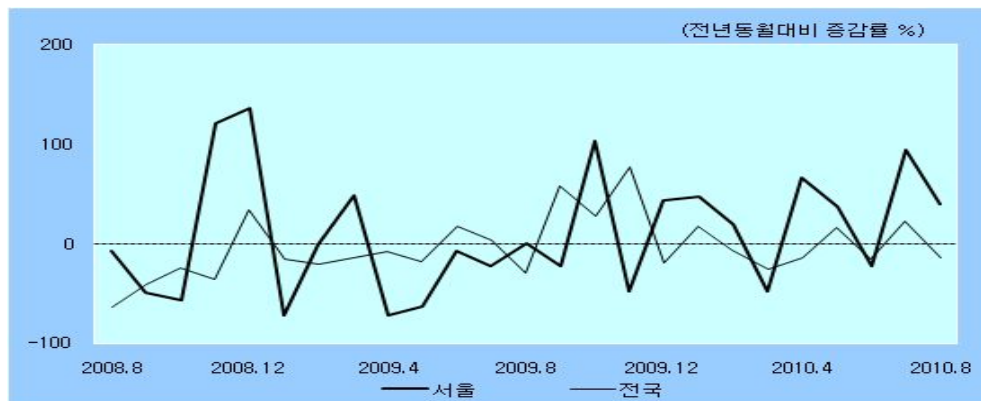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2,85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8%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조 10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9%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32.1%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신규주택, 기계설치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0.4%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주택 및 상하수도, 통신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9.4% 증가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34.1%, 토목부문이 118.7% 각각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서울		919	1,032	1,481	1,652	1,530	1,285	39.8	-16.0
발주자별	공공	414	58	26	331	231	71	-30.4	-69.3
	민간	3,646	973	1,430	1,243	1,299	1,214	49.4	-6.5
공종별	건축	3,786	944	1,406	1,437	1,419	1,150	34.1	-19.0
	토목	379	88	75	215	111	136	118.7	22.5
전국		24,649	6,418	8,354	9,877	7,346	4,010	-13.9	-45.4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보합으로 전환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방학 이사 수요와 가을 이사철 준비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며 보합으로 전환

■ 서울 주택매매가격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4%)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와 보금자리주택, 장기 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7월	8월		
서울		100.9	102.1	101.7	0.8	-0.4
아파트		101.1	101.3	100.8	-0.3	-0.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0.3	101.3	101.0	0.7	-0.3
	강남	101.6	102.9	102.6	1.0	-0.4
전 국		100.0	102.3	102.3	2.3	0.0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

- 강북지역(-0.3%)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도봉구(-1.0%), 용산구(-0.8%), 노원구(-0.4%), 강북구(-0.4%)가 하락을 주도함
- 도봉구는 보금자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됨
- 인근 남양주 진접지구,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려는 세대의 기존 주택 처분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함. 용산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난항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및 매수세 부진으로 매매가격이 하락됨

■ 강남도 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

- 강남지역(-0.4%)도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구로구(-0.6%), 영등포구(-0.5%), 양천구(-0.5%), 강남구(-0.5%)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대출규제와 항동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지정 등으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부진한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매매보다는 전세가 선호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함
- 영등포구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지연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 심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부담으로 내놓은 저가매물이 적체되고 있음

■ 8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5개월 연속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8월 27일 기준)은 1,801.78만원으로 전월(1,809.89만원) 대비 하락한 수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94만원), 서초구(2,849만원), 용산구(2,562만원), 송파구(2,379만원), 양천구(1,935만원), 광진구(1,876만원), 강동구(1,85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7만원), 도봉구(1,105만원), 중랑구(1,128원), 강북구(1,14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 강북강남지역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방학 이사 수요와 가을 이사철 준비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상승세가 확대됨
- 지난달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0.3%)은 강북지역(0.2%)이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강남지역(0.4%)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광역시(0.5%)는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였으나, 기타지방(0.3%)은 상승폭이 축소됨

■ 서울 강북강남지역 모두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0.2%)에서는 광진구(0.6%), 마포구(0.6%) 등에서 상승하였고, 성북구(0.3%), 도봉구(-0.2%) 등에서 하락함
- 광진구는 가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으로 진입하려던 학군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광진구로 유입되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수요도 유입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함
- 마포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구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아현 1~3구역, 대흥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이 10월까지 이주 완료 예정으로 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함
- 강남지역(0.4%)에서는 영등포구(1.0%), 구로구(0.8%)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동작구(-0.1%)는 전월대비 하락함
- 영등포구는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세를 유지하는 수요, 방학 이사수요, 가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수요, 여의도 업무지구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도림 16구역 이주 수요가 가세되며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함
- 구로구에서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의 전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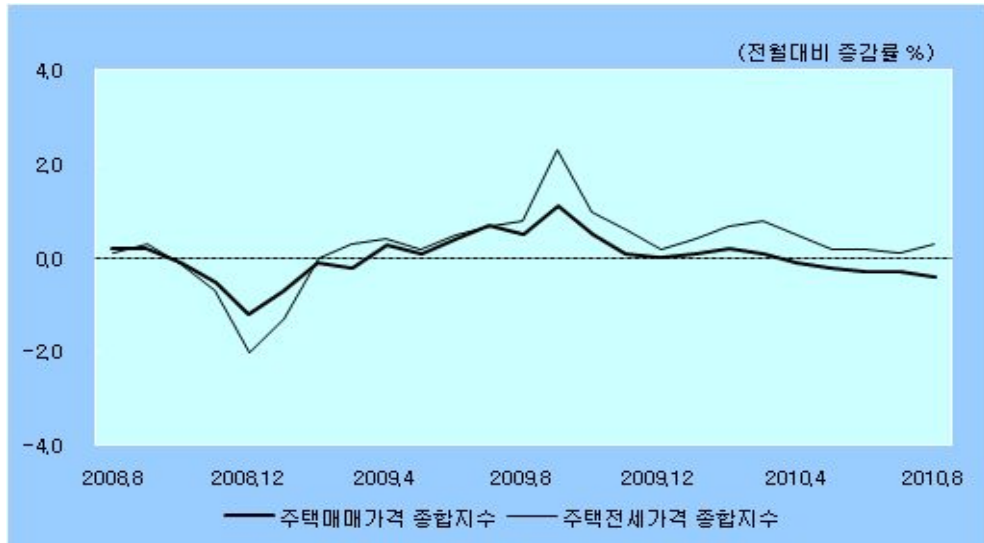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7월	8월		
서울		101.7	109.1	109.3	7.5	0.3
아파트		102.8	111.6	111.9	8.8	0.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0.5	106.5	106.7	6.1	0.2
	강남	102.9	111.6	112.0	8.8	0.4
전국		100.4	106.8	107.2	6.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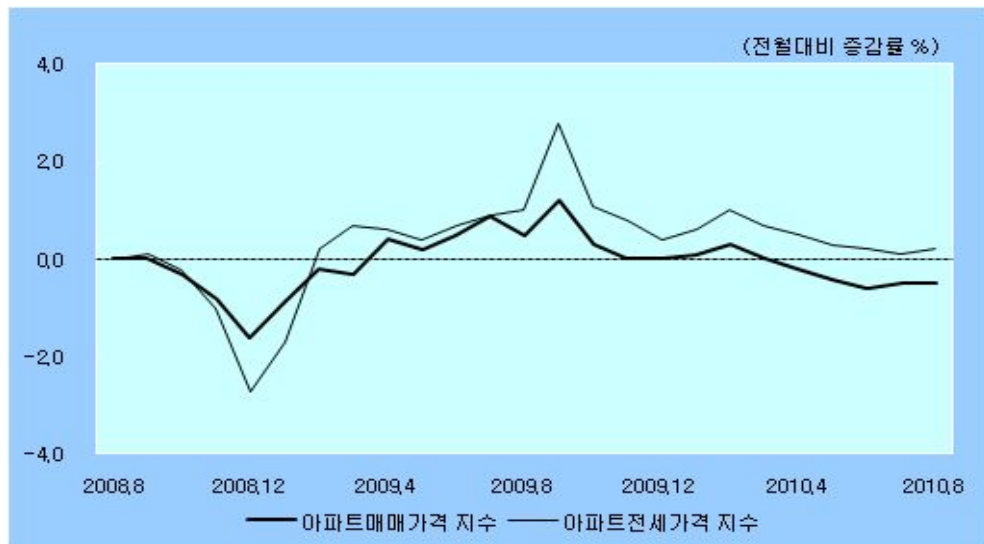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6%로 전월(42.3%)보다 0.3%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월 41.0% → 3월 41.3% → 4월 41.5% → 5월 41.8% → 6월 42.1% → 7월 42.3%)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5.7%보다 13.1%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3.2%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5.0%, 강남 40.5%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5%p이며 지난달과 같은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8월 국고채 금리 상당 폭 올랐다가 급락

■ 8월 중 국고채 금리 상당 폭 올랐다가 다시 하락

- 8월 중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월초에 상당 폭 올랐다가 이후 수요 우위의 수급여건(국고채 발행규모 축소,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지속 등에 기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연중 최저 수준인 3.54% 까지 급락
- 8월 말 경 이후에는 단기급락에 따른 부담 등으로 소폭 반등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등락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등락하는 모습
- CD(91일) 금리는 2.63%를 유지하다가 은행채(3개월) 금리와의 역전현상(은행채 금리가 MMF 수신 감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하여 8.26일 이후 CD 금리를 상회)이 지속되면서 8.31일 2.66%로 3bp 상승

■ KOSPI 지수 등락을 거듭

- 8월 초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8.3일, 1,791p)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및 이에 따른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 등으로 하락하여 1,750p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
- 9월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하여 9.6일에는 1,792p(08.6.9일 1,809p 이후 최고치)를 기록
(5월말 1,641p → 6월말 1,698p → 7월말 1,759p → 8월말 1,743p)

■ 8월중 외국인 국내주식 소폭 순매도

- 8월 중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소폭 순매도하였으나 9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
외국인 순매수(조원): → 4월 5.5조원 →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 7월 3조원
→ 8월 -0.6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B-A)
		8월	5월	6월	7월(A)	8월(B)	9.27일	
금리	국고채(3년)	4.42	3.70	3.75	3.88	3.73	3.39	0.05
	CD(91일물)	2.48	2.45	2.45	2.58	2.63	2.66	0.00
	콜금리(1일)	1.98	2.01	2.00	2.21	2.27	2.28	-0.01
	장단기 금리차 ¹⁾	1.94	1.25	1.30	1.30	1.10	0.73	0.05
주가	KOSPI	1577.91	1,648.30	1,691.94	1,731.12	1,762.18	1,860.83	43.64
	KOSDAQ	515.61	497.85	493.3	490.97	475.35	486.29	-4.55
환율 (₩/US\$)		1,239.69	1,168.41	1,214.02	1,204.94	1,180.05	1,148.20	45.61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8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 축소

-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주택거래 부진 지속,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집단대출이 신규입주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증가규모가 축소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휴가철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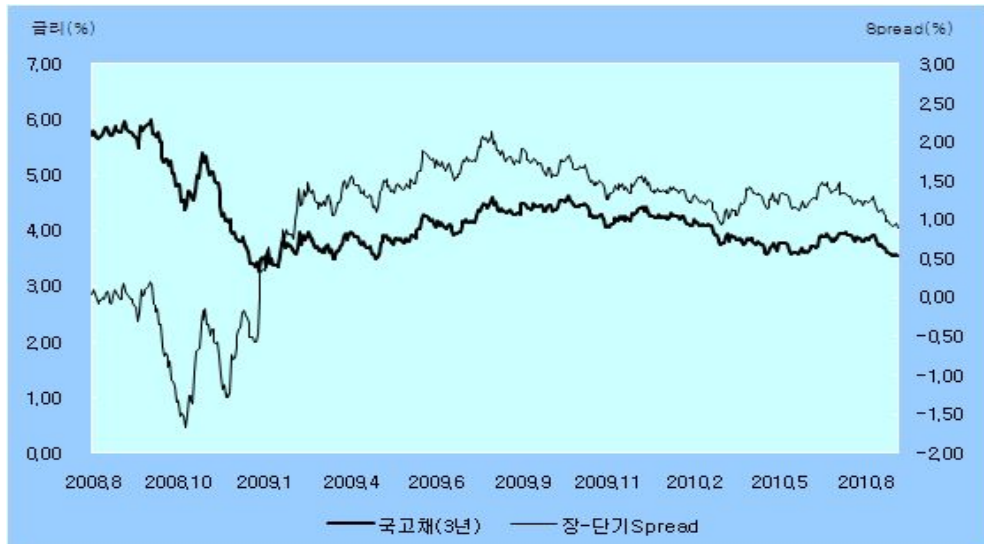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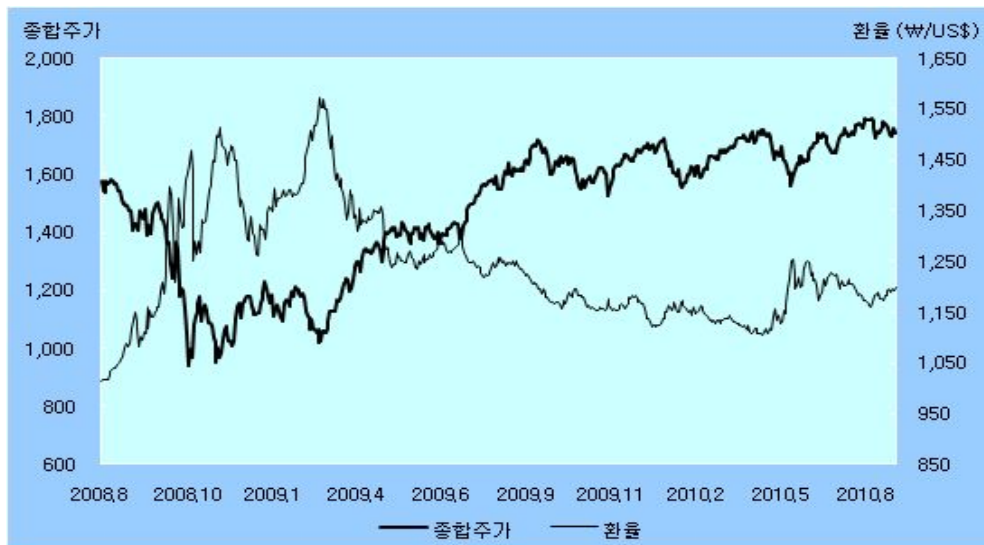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연중	4월	5월	6월	7월	8월	2010년	
								7월	8월
가계대출 ¹⁾		20.1	1.7	4.4	2.5	1.5	1.0	419.3	420.3
주택담보대출 ²⁾		25.4	1.8	1.7	2.5	2.2	-0.3	275.4	275.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0	2.7	0.0	-0.8	1.3	142.9	144.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7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7조 2,82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7,114억원 (0.53%) 증가
- 7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90조 9,337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1,255억원 (0.40%)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예금은행	950,708.70	419,168.0	421,795.5	421,874.9	424,302.1	2,427.2	0.58
	비은행기관	288,885.80	94,887.5	94,591.8	92,695.8	92,980.0	284.2	0.31
	합계	1,239,594.50	514,055.5	516,387.3	514,570.7	517,282.1	2,711.4	0.53
전국	예금은행	419,566.70	967,784.2	974,047.5	975,225.8	978,910.0	3,684.2	0.38
	비은행기관	86,343.70	310,865.2	312,869.0	310,582.4	312,023.7	1,441.3	0.46
	합계	505,910.40	1,278,649.4	1,286,916.5	1,285,808.2	1,290,933.7	5,125.5	0.40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7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50개로 전년동월대비 6.3%(124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1%(21개) 감소하였음
- 7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260개로 전년동월비로는 4.4%(241개) 감소하였고, 전월비로는 3.5%(188개) 감소.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비는 2009년 6월부터 1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5.2%(78개) 감소, 제조업이 2.5%(8개) 감소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22.8%(3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974	1,946	1,669	1,871	1,850	-21	-1.1	-124	-6.3	
서비스업	1,490	1,513	1,286	1,438	1,412	-26	-1.8	-78	-5.2	
제조업	321	283	257	300	313	13	4.3	-8	-2.5	
건설 및 설비업	158	141	120	126	122	-4	-3.2	-36	-22.8	
전국	5,501	5,508	4,565	5,448	5,260	-188	-3.5	-241	-4.4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신설/부도법인 배율 하락

- 7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6개로 전월대비 33.3%(14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2개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5.1배로 전월(52.0배)보다 하락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2.6배로 전월(58.6배)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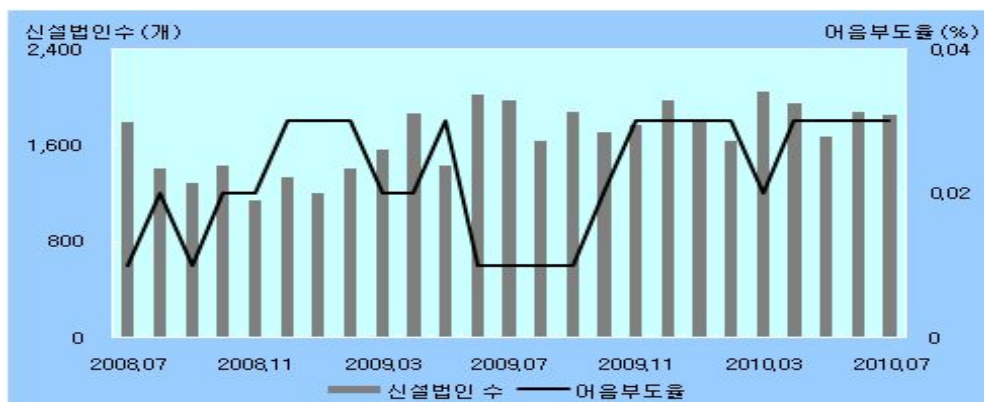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3	0.03	0.03	0.03	0.00	0.0
	부도업체 수	45	41	45	42	56	14	33.3
	신설/부도법인배율	56.4	55.6	42.8	52.0	45.1	-6.9	-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4	0.03	-0.01	-25.0
	부도업체 수	129	125	120	122	122	0	0.0
	신설/부도법인배율	64.0	60.5	47.6	58.6	62.6	4.0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지원 건수 · 금액 증가

■ 보증지원 금액 및 건수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8월중 7,186건, 108,917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5.46% 증가, 보증금액 6.23% 증가하였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33% 증가하였음.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44.9%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46.5%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3,036	5,791	7,362	6,814	7,186	372	5.46	-5,850	-44.9
금액	203,478	117,045	132,810	102,529	108,917	6,388	6.23	-94,561	-46.5
건당평균금액	15.6	20.2	18.0	15.0	15.2	0.2	1.33	-0.4	-2.6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종 보증지원율 상승

- 8월중 서비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26.7%로 전월(30.0%)대비 3.3%p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지원은 18.3%로 전월(16.1%)대비 2.2%p 증가하였음. 보증건수 기준 시 서비스업종은 31.9%로 전월(38.9%)대비 7.0%p 감소하였으며, 음식·숙박업종은 17.9%로 전월(15.6%)대비 2.3%p 증가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552	2,305	1,289	2,293	747	7,186
비율	7.7	32.1	17.9	31.9	10.4	100
금액	9,188	39,203	19,876	29,057	11,593	108,917
비율	8.4	36.0	18.3	26.7	10.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업규모별 지원비중 변동 폭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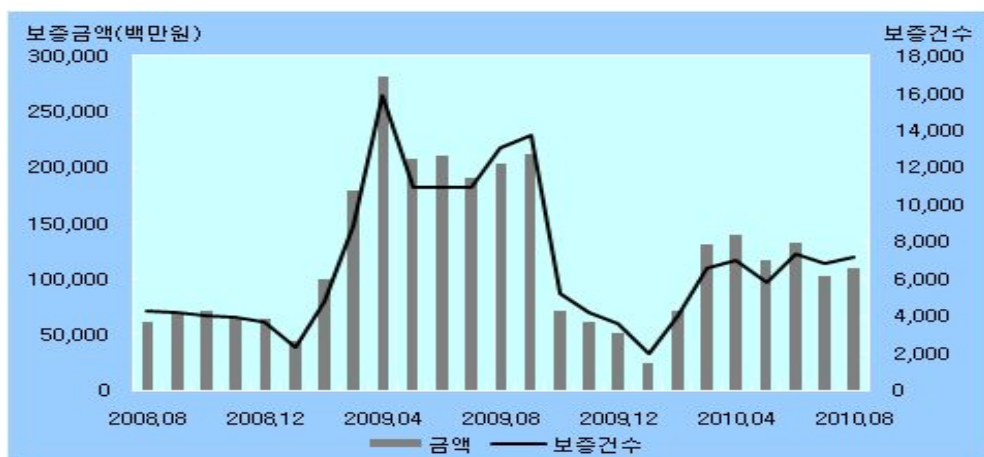
- 8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 지원이 금액기준 92.5%로 전월(92.9%)대비 0.4%p 감소하였으며, 건수기준 98.0%로 전월(98.2%)대비 0.2%p 감소
 - 반면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5.0%로 전월(4.9%)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1.5%로 전월(1.4%)대비 0.1%p 증가함. 또한 중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2.5%로 전월(2.2%)대비 0.3%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5%로 전월(0.4%)대비 0.1%p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폭 변동하여, 지난 7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6	2010.7	2010.8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7,167	6,689	7,037	348
	비율	97.4	98.2	98.0	-0.2
	금액	114,552	95,225	100,713	5,488
	비율	86.3	92.9	92.5	-0.4
소기업	건수	154	98	112	14
	비율	2.1	1.4	1.5	0.1
	금액	12,546	5,067	5,455	388
	비율	9.4	4.9	5.0	0.1
중기업	건수	41	27	37	10
	비율	0.6	0.4	0.5	0.1
	금액	5,715	2,238	2,749	511
	비율	4.3	2.2	2.5	0.3
합계	건수	7,362	6,814	7,186	372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32,810	102,530	108,917	6,387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수출은 37.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4% 증가하였고, 수입은 86.4억 달러로 33.4% 증가
- 8월 전국의 수출은 369.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7% 증가하였고, 수입은 352.5억 달러로 28.6% 증가

■ 8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24,622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24,657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165.1% 증가, 수입의 경우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185.0%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2,774	3,770	3,924	4,256	4,090	3,783	1,009	36.4
	수입	6,476	8,924	8,499	8,746	8,960	8,640	2,164	33.4
전국	수출	28,950	39,433	39,099	41,921	40,949	36,965	8,015	27.7
	수입	27,408	35,378	34,971	35,493	35,443	35,247	7,839	28.6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8월		2010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774,377	8.7	3,783,330	36.4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04,386	802.1	524,622	72.4
2	자동차부품	153,293	82	406,340	165.1
3	반도체	175,225	72.8	228,018	30.1
4	편직물	153,978	-11.4	186,163	20.9
5	합성수지	133,598	81.4	166,759	24.8
6	무선통신기기	115,527	-20.8	142,651	23.5
7	고무제품	124,598	31.1	138,280	11.0
8	합성고무	79,621	227.5	137,557	72.8
9	의류	79,142	-7.4	86,439	9.2
10	컴퓨터	120,486	18.4	76,917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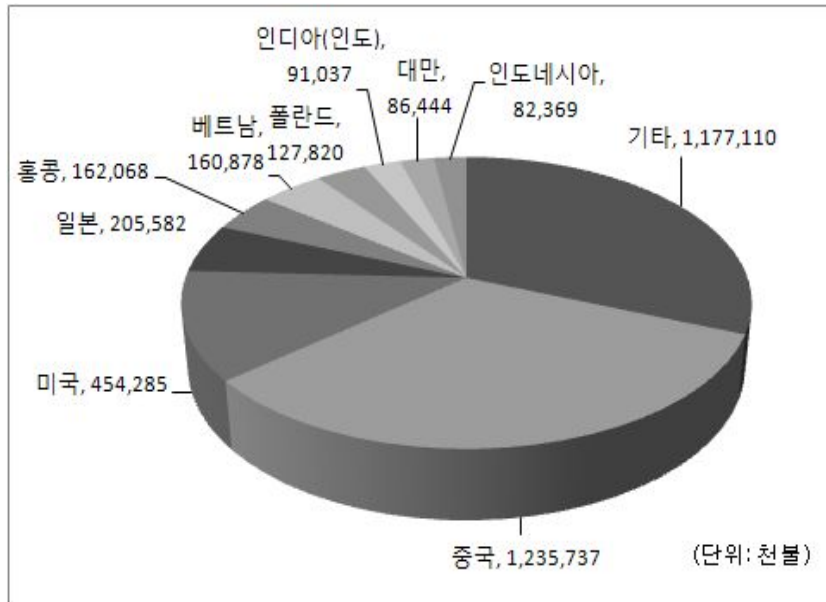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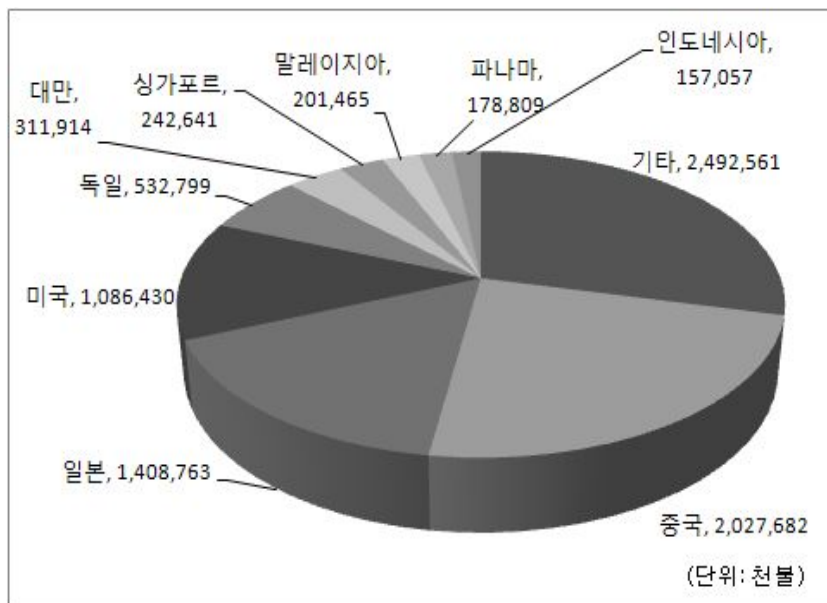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8월		2010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476,246	-18.8	8,640,121	33.4
1	반도체	683,722	59.8	724,657	6.0
2	컴퓨터	361,709	-12.8	496,273	37.2
3	석유제품	301,174	579.1	484,691	60.9
4	의류	270,465	46.8	367,588	35.9
5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17,995	-5	336,326	185.0
6	자동차	222,007	89	330,849	49
7	플라스틱제품	184,886	161.8	219,039	18.5
8	농약 및 의약품	148,102	33.2	206,630	39.5
9	무선통신기기	104,912	-10.8	194,387	85.3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8,278	117.8	191,314	13.7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